

조선의용군 화북지대

1938 년 일본침략자들이 수십만 대군을 몰아 무한을 포위공격할 때 포연이 자욱한 무한에서 조선의용대를 창립한 조선혁명가들은 2 년 남짓한 동안 국민당통치구에서 활동하였다. 그러나 장개석과 국민당의 소극적인 항전과 부패한 국민당 통치는 조선혁명가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그리하여 1941 년부터 조선의용대 주력을 중심으로 수많은 조선혁명가들이 북상하여 팔로군의 항일근거지로 왔다.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태항산항일근거지에 모인 조선혁명가들과 조선의용대 주력은 팔로군과 함께 어깨걸고 싸우면서 새로운 당을 창립하고 부대를 재편성하였다. 하북성 섭현 하남점진은 1943 년이후 조선혁명가들이 활동했던 곳이다. 이에 앞서 조선혁명가들과 조선의용대는 하북성 섭현 중원향과 태항산중심부에 위치한 좌권현에서 활동하였다.

조선의용대가 태항산에서 활발한 대적선전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화북에 있던 많은 조선이주민들이 조선인 항일부대가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수많은 열혈 조선청년들과 일제에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병사들은 기회를 타서 조선의용대를 찾아왔다. 그리하여 조선의용대와 화북조선청년연합회는 신속히 장대해졌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조선청년연합회는 조직을 재정비할 중요한 회의를 개최하려 했다. 그러나 1942 년 태항산항일근거지에 대한 일제의 몇 차례 토벌로 하여 회의는 7 월까지 미루어졌다.

적의 5 월 포위토벌을 극복한 조선의용대는 섭현 중원향 중원촌에 집결하였다. 팔로군 포병탄 탄장으로 있던 무정도 포병부대 창설임무를 완수하고 이 시기 새로운 임무를 맡으러 중원촌에 왔다. 이들은 중원촌에서 조선청년연합회(朝鮮靑年聯合會) 제 2 차회의를 소집하고 조선혁명군정학교의 전신인 조선청년혁명학교를 설립하였다.

62 번지의 낡은 2 층 건물은 수십명이 거주할수 있었고 또 수십명 정도의 회의도 소집할 만해 보였다. 그러나 리사화로인은 1984 년에 조선의용대 출신의 간부들이 중원촌을 답사할 때도 조선청년연합회 제 2 차대회가 이곳에서 열렸는지 마을의 다른 유적지인 원정보사(元定寶寺)에서 열렸는지 분명하게 지적하지 못했다고 알려주었다.

조선청년연합회와 조선의용대의 재정비를 목적으로 한 조선청년연합회 제 2 차대회는 1942 년 7 월 14 일부터 중원촌에서 열렸다. 각지 분회의 대표들까지 모두 참석한 이 회의에서는 화북조선독립동맹(華北朝鮮獨立同盟)을 결성하고 조선의용대를 조선의용군으로 개편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청년연합회는 조선독립동맹으로 결성되었고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조선의용군 화북지대로 개칭되었다. 대회에서는 김두봉, 무정, 최창익, 박효삼, 김학무, 채국번(蔡國藩 원명 김호 金浩), 김창만, 왕지연, 리유민, 진한중, 리춘암 등 11 명을 독립동맹 본부 집행위원으로 선출하였고 김두봉을 집행위원회 주임으로 선거하였다.

무정이 조선의용군 사령으로, 박효삼이 조선의용군 화북지대 대장을 맡았다. 조선의용군은 1944 년초 주력이 연안으로 이동할 때까지 줄곧 태항산지역에서 활동하였다. 화북지대는 조선의용대 대원, 각지에서 온 학생, 소상인, 류량자, 일본군 통역관 종사자들을 교육 흡수해 근 200 여명에 달했다.

조선독립동맹이 결성된후 조선의용군 화북지대는 각 대로 나누어 중국공산당이 통제하는 항일유격구에서 활동하였다. 태항산 항일근거지에 가장 많이 집중되었고 산둥이나 섬서, 화중에도 흩어져 활동하였다.

진동남지구는 태항산지역 팔로군 전방총사령부와 129 사 사령부가 위치한 곳으로서 중국 팔로군의 활동중심지이다. 항일전쟁이 시작된후 조선혁명자들은 대부분 이곳에 집중되어있었다. 초기에는 진광화와 윤세주가 이곳 조선혁명활동을 이끌었고 조선독립동맹이 결성된후 동맹의 주요간부들이 책임졌다. 진동남지구는 독립동맹의 총부소재지이고 의용군의 중심지로서 줄곧 중요한 역할을 일으켰다.

1942 년 8 월, 리익성이 조선의용군 화북지대 제 2 대 13 명 대원을 거느리고 진찰기지구로 진출하였다. 이곳은 팔로군 115 사가 개척한 항일근거지로서 산서성 동북부의 오대산을 중심으로 산서북부, 차할, 하북 북부를 포함한 지역이다. 이에 앞서 조선혁명가 림평(林平), 채국번, 고생호(高生鎬), 김무가 이곳에서 활동하고있었다. 이들은 1941 년 12 월 10 일에 조선청년연합회 진찰기 지회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리익성과 조선의용군 대원들이 진찰기에 온후 군대는 리익성이 책임지고 적후공작은 채국번이 맡았으며 재편성한 조선독립동맹 진찰기

분맹은 공명우가 책임졌다. 진찰기지구는 조선인이 많았던 북경, 천진, 당산, 기동으로 쉽게 진출할수 있었고 또 중국 동북이나 조선 국내에 거점을 만들기 편리하였다.

진서북(晉西北)지구는 려량산맥(呂梁山脈)을 중심으로 한 산서성 서북 산지를 말한다. 하룻이 이끄는 팔로군 120 사가 이곳 흥현(興縣)에 주둔하면서 섬북으로 통하는 길목을 지키고 있었다. 조선의용대 출신인 최채선생이 회억한데 의하면 최창익, 허정숙, 최영(崔英)이 진서북에서 활동하고있었다. 그러다가 최창익과 허정숙이 떠났다. 조선독립동맹이 결성된후 1942년 11월 13일에는 김세광, 문명철, 최채, 최영이 흥현에서 조선독립동맹 진서북분맹을 창립하였다. 분맹 책임자는 김세광이였고 조직위원을 맡았던 문명철은 팔로군과 함께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문명철(1914-1943)은 전라남도 사람으로서 중국에 건너와 중앙군관학교를 졸업하였다. 조선의용대에 참가한 그는 호남성 북부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전공을 세워 국민정부로부터 훈장을 수여받기도 하였다. 1941년 그는 태항산 항일근거지에 도착했고 1942년, 조선독립동맹 진서북 분맹 조직위원을 맡았다. 그는 수차 적후를 넘나들면서 적과 싸웠다. 1943년 4월 14일, 백여명 적에게 포위된 문명철은 두명 중국인 전사와 함께 싸우다가 마지막에 수류탄을 터뜨림으로서 적과 함께 죽는 희생을 선택하였다.

연안을 중심으로 한 섬감녕(陝甘寧) 지구에는 일찍부터 조선혁명가들이 많이 모여왔다. 이곳은 태항산 항일근거지 다음으로 조선혁명가들이 가장 많이 집결된 곳이다. 항일군정대학과 동북간부훈련반(東北幹部訓練班)에 조선청년들이 있었다. 그리고 팔로군 359 려단에는 주덕해(朱德海)와 리권무(李權武)가 있었다. 정률성과 주덕해가 선후로 섬감녕지구의 조선청년연합회 지회를 책임졌다. 그러다가 1942년 태항산으로부터 김두봉, 한빈, 윤치평(尹治平), 조렬광, 권혁(權赫 일본녀성), 연군(燕軍) 등이 연안에 도착하여 1943년 1월 10일 조선독립동맹 연안분맹을 창립하였다.

항일전쟁후 팔로군 115 사는 부분적 유격대를 산동에 파견하여 산동 각지에 유격대를 조직하였다. 조선청년연합회는 주혁(朱革)과 로민(魯民)을 산동에 파견해 조선인 쟁취활동을 진행하게 하였다. 1942년 조선독립동맹이 결성되자 조선의용군 화북지대 제 1대 대원들이 산

동으로 들어가 활동하였다. 주혁이 조선독립동맹 산동분맹 주석을 맡았고 리명이 주임을 맡았다. 그리고 로민은 교동(膠東)분맹을 세워 항일전쟁이 승리할 때에 50 여명 맹원을 확보하였다.

1943 년, 하북성 창려현(昌黎縣) 철남에서 조선독립동맹 기열료 분맹이 창립되었다. 일찍부터 기동에서 활동하던 리대성(李大成)이 조직위원을 맡고 진국화(陳國華)가 선전위원을 맡았으며 주연(朱然)이 정치주임을 맡았다. 책임자는 진찰기 분맹의 군 책임자였던 리익성으로 나타나고있다. 한편 산서성 태악산(太岳山) 지역에는 리옥근, 관건, 조소경(趙少卿), 하양천(河仰天)이 선후로 팔로군 적군공작부(敵軍工作部)에서 활동하였다.

팔로군 통제지역뿐만 아니라 신사군 활동지역에도 많은 조선혁명가들이 있었다. 항일전쟁이 시작된후 공산당이 령도하는 신사군은 장강 이남에서 활동하였다. 1941 년 환남사변(皖南事變)을 겪었지만 신사군은 계속 강소, 절강, 안휘를 비롯한 화중지역에서 장대해졌다. 1944 년 1 월, 홍택호(洪澤湖) 부근에서 조선독립동맹 화중분맹과 조선의용군 화중지대가 성립되었다. 독립동맹 본부에서 파견한 리성호(李成鎬), 김윤덕(金潤德), 손달(孫達)이 주요책임자로 되었다.

태항산에서의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 화북지대의 창설은 중국 관내조선인 반일투쟁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조선독립동맹은 각지에 지하투쟁 일군을 파견하여 더욱 많은 조선청년들을 단합시켰으며 중국공산당과 적극 협력하여 일제와의 최후승리를 준비해나갔다. 그들은 중국공산당 중앙이 소재한 연안뿐만 아니라 팔로군이 통제하고있는 광활한 적후항일근거지에서 활동했으며 강남의 신사군에도 간부들을 파견해 중국의 항일전쟁을 적극 지원하였다.

조선혁명가들과 조선의용군 화북지대 장병들은 생산운동에 적극 참가하는 동시에 적후항일근거지에서 적과 싸웠으며 무장선전, 정보수집, 포로교양을 진행함으로써 조선의용군의 역량을 크게 확대시켜나갔고 또한 중국항일전쟁에 큰 기여를 하였다.

(출처:인민넷)